

제주바다 잇단 여름 불청객에 '4중고'

괭생이모자반·갈파래·살파류·해파리 차례로 유입
조업 어민 피해 속출... 해양 오염속 미관도 저해

'여름철 제주바다의 불청객 4인방'이 차례로 제주바다에 유입되면서 수산당국이 처리난 등 사중고를 겪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에 이어 구명갈파래가 습격한 제주바다에 이번에는 살파류는 물론 독성이 강한 해파리 유입이 예고됐다. 본보 제주해녀 특별취재팀이 지난 12일 제주해녀 서부도 인근에서 수중장비를 이용해 수중 환경을 탐사한 결과 다량의 살파(Salpa)류가 목격됐다. 특히 살파류는 10~50cm 크기로 선박 하부와 부두 인근 방파제 등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안에 유입된 다량의 살파류로 인해 어업

이들 어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부도에서 만난 어업인 A씨는 "최근 서부도 인근 해상에서는 다량의 갈파래가 목격되고 있다"면서 "살파류 유입은 올해 유독 심한 편이다. 살파류로 인해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살파류는 몸체가 젤라틴으로 이뤄져 해파리와 유사하지만 물속에서 떠다니는 부유성 명계류에 해당된다. 도내 연안에 유입되는 종은 크기가 2~5cm 정도의 종으로 물속에서는 사슬형태의 군집을 형성해 최대 1m

'페그물 등 해양쓰레기 가져오세요'

서귀포시,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단가 50% ↑

서귀포시는 15일 어선들의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에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해양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협 3개소(서귀포·성산포·모슬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매 단가도 작년보다 50% 상향 조정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선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오면 이를 일정한 금액에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매대상은 해상에서 인양된 페어구, 페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페스티폼 등이다. 올해 수매 단가는 마대(폐어구·페

김동진 제주연구원장 사직 제11대 원장·이사 8명 공모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대 원장 및 비상근임원(선임직 이사)을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입원장 공모는 김동진 제주연구원장이 2학기 개강에 맞춰 제주대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도 현 선임직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8명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

원장 및 선임직이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 까지만다. 원장의 응시자격 요건은 경교수로 5년이상 대학교에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관의 원장 경력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에 있는 자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위에 의해 1인을 선정, 이사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회와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목욕하는 제비 장맛비가 주춤한 15일 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에 제비들이 찾아 연신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소방본부 '온열질환 주의보' 발령

최근 3년 환자 222명 발생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함에 따라 온열질환사고 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온열질환자 중 가장 많은 37%(82명)는 실외 작업 중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무더

위 험도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 소방안전본부는 온열질환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환자 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 조각·팩, 생리식염수 등을 갖춘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급수 지원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7월 중·하순 고수온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 및 지하해수 미개발 양식어장에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액화산소는 양식장 사육수의 수온 상승 시 산소포화도를 높여 집단폐사를 막아준다. 사업비는 고수온 특보기간 동안에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 지원된다. 특보의 경우 ▷관심은 주의보 발령 예측 1주일 전 ▷주의보는 수온 28℃ 도달 ▷경보는 수온 28℃ 이상 3일 지속되면 발효된다. 도는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장

18일 대입수능 모의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30개 고등학교와 5개의 학원시험장(졸업생)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쳐 6759명에 이른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한 적정 난이도 유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수험대비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문항유형과 수준을 직접 접할 수 있어 12월 3일 시행하는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선희기자 sunny@ihalla.com

Ora & Coffee 오픈!

2층

제주 최초 LG Z:IN 창호전시장 [오라점] 오픈

- *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 *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2020년 HIT 상품
(발코니창, 시스템창, 중문, 도어, 유리등) 다양한제품 및 2020년형 신제품 비교 체험(인테리어, 가구 업체와 연계)

최고의 고객 만족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LG PVC 발코니창호 (유리난간대)

LG Z:in AL 슬림3연동 중문

LG Z:in AL 스윙중문

LG Z:in ABS도어

[주]한진시스템
제주대리점

- 시스템창호
- PVC창호
- A · L · 유리

[주]한진시스템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문의 TEL.711-5169